담양군, 딸기 해외 재배 네트워크 구축

품종 유지·신품종 딸기 육종
네덜란드·프랑스와 업무협약
아프리카 등 재배 희망지 공급
'딸기 모종 판매' 담양에 로열티

담양군이 지난달 27일과 29일 네덜란드 플레보베리와 프랑스 앙지에에서 육성 딸기 해외 재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딸기 재배를 희망하는 전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모종을 공급할 수 있어 해외 시장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네덜란드 플레보베리 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기존 업무협약 만료에 따라 담양 육성 딸기의 품종 유지 및 신품종 딸기 육종을 위해 이뤄졌다.

담양군이 지난달 27일과 29일 네덜란드 플레보베리와 프랑스 앙지에에서 육성 딸기 해외 재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딸기의 육묘 및 재배 희망지에 모종을 공급하기 위한 프랑스 앙지에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담양군은 플레보베리에서 딸기 모주를 공급받아 프랑스 앙지에에서 육묘한 후 유럽, 아프리카 등 재배 희망지에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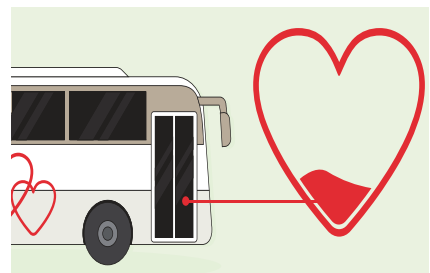
앙지에에서는 딸기 모종이 판매되는 만큼 담양군에 로열티를 지급한다.

주요 수출 품종은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죽향과 금실 품종이다. 독특한 식감과 풍미로 해외 소비시장에서 높은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우선 앙지에를 통해 2025년 딸기 육묘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블랙튤립그룹 케냐 농장 1ha에 딸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담양 딸기 재배 희망지에 언제든 모종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프리미엄 담양 딸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생명나눔 단체 헌혈 행사
함평군, 오늘 보건소 일원

함평군은 혈액보유량이 급감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원활한 혈액수급에 기여하고자 '2024년 생명나눔 단체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생명나눔 단체 사랑의 헌혈 행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평군보건소 및 함평자동차극장 헌혈버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혈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헌혈 전 몸 상태, 약 복용 및 시술 여부 등 헌혈 전 상담을 통해 헌혈 가능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념품 증정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함평군은 올해 3회에 걸쳐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함께 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함평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화순군, 작업 도구 소독 등

화순군은 3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매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로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없고 발병 시 주변 나무를 모두 매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5년 1월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된 예방수칙 준수사항과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농가 스스로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화순군도 적극적으로 농가를 지원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노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최근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단열벽지와 창호지를 교체하고 문풍지를 부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노안면지사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주시 노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겨울철 혹한기에 대비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3일 나주시 노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안면지사협 위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단열벽지와 창호지를 교체하고 문풍지를 부착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욕실 벽을 페인트로 새롭게 단장하고 주택 외부 환경을 정리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김설매 민간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겨울을 보내야 했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인 면장은 "지사협 위원들의 따뜻한 헌신 덕분에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연말 맞아 커피 쿠폰 등 증정

화순군은 2024년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맞이 마지막 절세찬스! 이벤트'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화순군은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스타벅스 1만원 쿠폰(100명) 또는 화순팜 2만원 쿠폰(100명)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NH농협은행)을 통해 화순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 내 당첨자 추가 혜택은 기부금 액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기부할 시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된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말 따뜻한 기부와 실속 있는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또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로 1석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금액 상한선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1기 화순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일 화순군 화순읍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고일 기준 화순읍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관(官)계, 일반 주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화순읍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위원은 공개 추첨 및 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협의회 기능 등 역할을 맡게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취임 100일 배상진 장성경찰서장 "군민 안전 최우선"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등

제82대 장성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배상진(사진) 서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8월26일 배 서장은 취임 후 '따뜻한 장성경찰, 행복한 장성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장성경찰에 따르면 배 서장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예산 23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능형 CCTV 신규설치 등 치안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는 '황룡강 가을꽃 축제', '교통안전 집중활동의 날' 등 시기·테마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했으며 지역 내 불안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제거 하는 안심 공동체 구축을 위한 각종 치안정책도 추진해 왔다.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배 서장은 경찰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필드데이 현장간담회', '소통 간담회', '장성 BEST경찰' 등 다양한 특수 시책을 발굴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부서 중심 맞춤형 예방 시책으로 기능별·세대별 공감토론회를 개최, 자기 진단 및 의무위반 예방 공감을 통한 의무위반 ZERO 달성과 클린 장성경찰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치안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군민의 안전이며 안정적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경찰과 지역 사회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면서 "장성군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